

Emily Dickinson의 「고통」의 詩에 나타난 삶 의 이중성

千 勝 傑

(英文科 副教授)

Emily Dickinson의 詩를 다루는 대부분의 학자와 비평가들은 Dickinson의 詩의 특성을 그의 傳記的 사실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George Whicher¹⁾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 전통은 Thomas H. Johnson,²⁾ Charles R. Anderson,³⁾ John Cody⁴⁾ 등 유수한 Dickinson 연구가들을 거쳐 Suzanne Juhasz 등 1980년대의 feminist critic들⁵⁾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그의 문학의 특성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기 마련이지만 Dickinson의 경우 그 관계는 보다 긴밀한 것으로 이해되는 탓일 것이다.

Dickinson의 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그의 전기적 사실로는 사랑의 실패와 그 충격,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잇단 사별, 밀폐된 은둔 생활의 고독, 청교주의에 대한 종교적 회의, 그리고 남성 위주의 인습적 사회에서의 여성의 소외에 대한 그의 반항적 의식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경험의 공통 분모를 이루는 基底는, 그리고 이들 경험이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 求心은 아마도 상실 의식,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빼앗김 의식이 아닐까 한다. Richard Wilbur는 Dickinson의 시를 이 빼앗김 의식(sense of privation)에 대항하려는 노력이라고 진단하면서 Dickinson의 시들은 「빼앗김이 풍요로움보다 더 풍요하다는,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역설을 계속 주장」(“her repeated assertion of the paradox that privation is more plentiful than plenty; that to renounce is to possess the more”)⁶⁾하고 있다고 말한다.

- 1) Dickinson을 실패한 사랑의 희생자로서의 시인으로 보는 George Whicher의 *This Was a Poet: A Critical Biography of Emily Dickins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8)은 이제는 Dickinson 연구의 한 고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 2) Thomas H. Johnson,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참조.
- 3) 그러나 Charles R. Anderson의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는 작품 자체의 형식주의적 분석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 4) John Cody, *After Great Pain: The Inner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Massachusett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은 Dickinson의 여성 역할의 실패를 중시하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 5) Suzanne Juhasz, ed.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참조.
- 6) Richard Wilbur, “Sumptuous Destitution.” in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ichard B. Sewall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이러한 빼앗김 의식은 필연적으로 갈등과 좌절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Dickinson의 시에서 우리가 거듭 여러 가지의 갈등과 좌절의 양상에 직면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갈등은 대체로, 주체가 되는 자아와 자연, 시간, 神, 죽음 등 非自我와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며 그것은 때로 “Me from Myself—to banish” (J. 642)⁷⁾와 같은 시에서처럼 자아와 자아의 갈등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Dickinson은 좀처럼 이러한 갈등에 쉽게 체념하거나 그로 인한 좌절 상태에 빠져들지 않는다. Dickinson의 세계에서 우리는 줄곧 갈등의 조화와 좌절의 극복을 위한 어떤 노력이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그런데 Dickinson의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노력이 추구하는 조화와 극복의 상태가 결코 단순하거나 분명한 것이 아닌 뭔가 모호하고 불안정하고 복합적인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된다. “Sweet Skepticism of the Heart” (J. 1413)같은 시는 이러한 느낌을 충분히 정당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Sweet Skepticism of the Heart—
That knows—and does not know—
And tosses like a Fleet of Balm—
Affronted by the snow—
Invites and then retards the Truth
Lest Certainty be sere
Compared with the delicious throe
Of transport thrilled with Fear—

(마음의 달콤한 의심은—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눈보라에 시달리는—
향로선처럼 흔들리기도 하며—
진리를 재촉하기도 하고 다시 만류하기도 한다—
두려움으로 떨리는 황홀경의
그 감칠맛나는 진통에 견주어
확신은 얼마나 깨말라 보일까 싶어—)

이 시는 분명하게 정의해 버릴 수 없는 인간 경험의 복합적인 의미를 암시하면서 확신의 매마름과 의심의 넉넉함을 역설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인간이 겪는 갈등의, 불안한 대로의 어떤 균형—혹은 긴장—상태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 균형 상태는 「달콤한 의심」, 「두려움으로 떨리는 황홀경」, 「감칠맛나는 진통」 등의 역설, 그리고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진리를 재촉하기도 하고 만류하기도 하는」 모호함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그것은 Dickinson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7) 이하 Dickinson의 작품은 Thomas H. Johnson이 編輯한 *The Poems of Emily Dickinson*의 분류번호에 따르기로 한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Dickinson의 시의 두드러진 한 특징은 의미에 있어서나 구문상(syntactic)에 있어서의 이러한 모호함(ambiguity)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호함은 아마도 인간 경험의 이중성에 대한 Dickinson의 깊은 관심, 그리고 삶의 신비에 대한 그의 이중적인 애증 감정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Dickinson은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 삶과 죽음, 사멸과 불멸(immortality)의 모호하면서도 신비로운 관계를 고착관념에 가까운 집요함으로 줄곧 탐험한다. 사멸하는 존재이면서도 불멸을 회귀하고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무한을 추구하는 인간의 운명 자체가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Dickinson의 이러한 집념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이러한 역설적인 이중성의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 절대적인 어떤 해답이 있을 수 없음을 Dickinson은 잘 알고 있고 그러한 그의 자각은 삶의 여러 양상에 대한 어떠한 단순하고 분명한 해석도 거부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 글의 목적은 Dickinson의 이러한 이중적 비전이 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고통」⁸⁾을 다루고 있는 그의 시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검토하여 그의 詩世界的 중요한 한 측면을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 Dickinson의 가장 성공적인 시들은 고통과 죽음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통의 극치의 상태는 아마도 죽음일 것이기 때문에 고통에 관한 그의 많은 시들이 죽음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고 죽음에 관한 많은 시들 역시 고통의 주제를 포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가능한 한 고통에 관한 시들로 분석 대상의 범위를 좁히려 한다.

Dickinson은 유별나게도 고통에 대하여 민감하며 고통과 괴로움(혹은 고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능력은 그의 타고난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그 첨예한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남긴 여러가지 삶의 고통의 산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Dickinson의 관심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고통의 상태 그 자체, 그리고 고통의 다양한 특질에 늘 집중되고 있다. 그의 시에서 우리가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단계의 여러가지 고통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J. 258)와 같은 시에서 매우 섬세하고 미묘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There's a certain Slant of light,
Winter Afternoons—

8) Dickinson의 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고통」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고통」의 뜻을 나타내는 용어 역시 'pain', 'suffering', 'agony', 'despair', 'anguish', 'affliction', 'misery', 'hurt' 등 다양하다. 이 용어들은 때로는 거의 同義적으로 사용되며 때로는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를 암시하기도 하는 데 이 점에 대해서는 Charles R. Anderson의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p. 192를 참고할 것.

That oppresses, like the Heft
Of Cathedral Tunes--

Heavenly Hurt, it gives us--
We can find no scar,
But internal difference,
Where the Meanings, are--

None may teach it--Any--
'Tis the Seal Despair--
An imperial affliction
Sent us of the Air--

When it comes, the Landscape listens--
Shadows--hold their breath--
When it goes, 'tis like the Distance
On the look of Death--

(겨울 오후엔
한줄기 빗길 햇살이 있어--
성당의 종소리의
그 무게처럼 억누른다--

그것은 하늘의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내면의 차이일 뿐,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다--

아무도 그것을 가르치지 못할지라--아무도--
그것은 봉인된 질망--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진
장엄한 고통--

그것이 올 때면, 풍경은 귀기우린다--
그림자들은--숨을 죽인다--
그것이 갈 때면, 그것은 마치 거리갈다
죽음의 표정에 담긴--)

이 시는 Dickinson의 編者들에 의해서 줄곧 자연에 관한 시로 분류되어 왔을만큼 표면적으로로는 자연의 한 모습을 담은 서정적인 풍경시처럼 보인다. 그러나 겨울 오후의 햇살이라는 일상적인 자연의 한 풍경을 배경으로 이 시가 궁극적으로 천착하고 있는 것은 일상적이 아닌, 결코 범상치 않은 미묘한 고통의 경험이다. 이 시는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황량하고 싸늘한 겨울 오후의 한줄기 빗긴 햇살은 성당의 종소리처럼 무겁게 우리의 가슴을 억누른다. 햇살과 종소리는 시각과 청각을 결합하는 교묘한 복합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Heft”에 담긴 「무게」라는 뜻 외의 「들어올린다」는 의미의 함축을 통하여 이 성당 종소리의 「들어올림」은 빗긴 햇살의 「내리누름」(“oppress”)과 미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어떤 이중성, 혹은 어떤 갈등을 암시한다. 이 이중성은 곧 “Heavenly Hurt”라는 모호하긴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발전하여 빗긴 햇살이 가하는 고통이 표면이 아닌 마음 속 혹은 영혼 깊숙한 곳에 상처를 남기는, 그래서 깊은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범상치 않은 고통임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 의미는 아무도(아마도 神을 제외하고는) 가르칠 수 없는 미묘한 의미이다. 겨울 오후의 빗긴 햇살이 가져오는 내밀한 상처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게 이미 굳게 봉인이 되어버린 절망이요, 하늘이 엄숙하게 내린 거부할 수 없는 賜藥같은 상처인 까닭이다. 이러한 빗긴 햇살이 찾아올 때면 그 햇살이 드러내는 겨울 오후의 황량한 풍경들 그리고 그 햇살이 드리우는 긴 그림자들은 그 햇살이 가져올 상처를 예감하며 — 그 상처는 아마도 곧 사라져 버릴 그 햇살의 殘命과 그 햇살의 소멸과 함께 사라져 버릴 자신들의 운명을 지켜 보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일텐데 — 숨 죽여 귀 기울인다. (첫 聯에서처럼 자연의 풍경으로 되돌아 오는 마지막 聯에서 첫연에서와 같은 시각과 청각의 복합적 이미지를 되살리는 것은 이 시의 짜임새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햇살이 사라질 때 그 사라짐이 남기는 죽음의 이미지, 그 죽음의 표정(“look”) 혹은 응시(“look”)는 고통의 엄습과 그 소멸간의 거리를, 어쩌면 삶과 죽음 사이의 모호한 거리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죽음의 이미지는 각각 四季와 하루의 종말을 상징하는 겨울·오후라는 이 시의 시간적 배경에 의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자연의 일상적인 한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가하는, 결국 죽음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미묘한 고통의 경험을 그리고 있는 이 시에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연에 대한 Dickinson의 태도이다. 물론 이 시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연의 모습들은 어떤 정서적 또는 감각적 경험을 형상화하는 詩的인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연의 근본적인 어떤 특질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인간에 대한 자연의 무관심, 때로는 고통을 가하는 적의적인 태도가 그것이다.

이 시에서 이러한 자연의 속성을 대표하는 겨울 오후의 빗긴 햇살이 하늘에서부터, 즉 神의 천국으로부터 내려 온 것이라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그 빗긴 햇살이 주는 고통이 神이 인간에게 가하는 고통이라는 암시는 “Heavenly Hurt,” “An imperial affliction,” “Seal Despair” 등의 표현에 잘 드러나고 있다. “imperial”은 천국의 황제인 神의 속성을 뜻하며 “Seal” 역시 「옥새」라는 의미로부터 “Seal Despair”는 천국의 황제인 「神의 옥새가 찍힌, 혹은 神의 옥새로 봉인한 절망」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는 神의

이미지와 때로 적의를 품은 억압적인 자연의 이미지와의 일치는 이 시의 의미를 종교적 차원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神의 속성을 이처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일 때 이 시의 핵심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Heavenly Hurt,” “imperial affliction,” “Seal Despair”가 함축하는 그 의미의 다양함이다. 먼저 이 표현들은 고통과 절망은 우리가 피하고 부정해야 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지고하고 고상하고 숭엄한 인간의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대극적 의미의 두 단어를 결합함으로써 이 표현들은 아픔과 황홀함이 공존하는 고통의 역설적 이중성을 성공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이중성은 바로 Charles Anderson이 Dickinson의 중요한 깨달음으로 지적하는 「인간의 절망과 천국의 황홀경에 대한 갈망 사이의 긴밀한 관계」(“close relation between human despair and the yearning for heavenly ecstasy”)⁹⁾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J. 341)는 이와는 다른 종류의 고통의 이중성을 다루고 있는 시이다. 이 시는 또한 고통의 극치의 순간에 대한 Dickinson의 뛰어난 묘사와 그런 묘사를 통하여 고통의 본질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본질을 이성적 체계 속에서 파악해 보려는 Dickinson의 노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

After great pain, a formal feeling comes—
The Nerves sit ceremonious, like Tombs—
The Stiff Heart questions was it He, that bore,
And Yesterday, or Centuries before?

The Feet, mechanical, go round—
Of Ground, or Air, or Ought—
A Wooden way
Regardless grown,
A Quartz contentment, like a stone—

This is the Hour of Lead—
Remembered, if outlived,
As Freezing persons, recollect the Snow—
First—Chill—then Stupor—then the letting go—

(커다란 고통 뒤에, 굳은 감각이 온다—
신경들은 무덤처럼 엄숙히 앉아 있고—
굳어진 가슴은 묻는다, 그것을 매고 간 자가 그인가고,
그것이 어제인가, 아니면 수백년 전인가고.)

9) Charles R. Anderson,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p. 219.

발은, 기계적으로, 돌아다닌다—
 땅에서, 아니면 공중에서, 아니면 無에서—
 되는대로 내버려진
 널판 길 위로,
 마치 돌같은 수정의 만족감—

지금은 남당이 시간—
 견디내면, 기억되리라,
 얼어 가는 사람이, 눈을 회상하듯—
 처음엔 寒氣—그리고는 마비—그리고는 해방감—)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아직 살아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고통에 의하여 마비가 된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어떤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 상처의 고통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내재해 있는 내면적 고통이다. Dickinson의 많은 시들이 그렇듯이 이 시에서도 첫행이 뒤잇는 모든 행들을 하나로 꼭 묶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굳은(형식적인)」 감각은 곧 굳고 엄숙하고 형식적인 장례의 분위기로 확산된다. 심한 고통에 의하여 마비된 신경은 마치 장례식에 둘러앉아 있는 조객들처럼 무감각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형식적인 굳음의 이미지는 엄숙한 의식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3행에서는 종교적인 이미지로 발전된다. 「그것을 매고 간 그」(“He that bore”)는 아마도 수백년 전 십자가를 매고 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¹⁰⁾ “Yesterday, or Centuries before”는 고통이 시작된 후 얼마나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이미 기억할 수 없는 심장의 마비상태를 뜻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제의 이 고통이 수백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뒤섞이어 비교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과 예수의 그 고통을 연결하여 그것으로부터 어떤 위안을 받고 싶어하는 굳어진 가슴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혼돈감에 빠진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Dickinson의 서로 대립되는 이중적 태도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제 2련에서 「생명력 없는 굳음」의 이미지는 「널판길」(“wooden way”) 위를 걷는 다리의 「기계적」이고 지향 없는(“regardless”) 움직임에 의하여 강화된다. “o”라는 모음의 類音(assonance)이 「삶의 활력에 대한 강력한 이 戲文에서 나무 널판지에 쿵하고 부딪히는 마비된 발의 둔탁한 소리를 잘 포착하고 있다」(“captures the hollow thud of numbed feet bumping against the wooden planking in a terrible parody of life’s vitality”)¹¹⁾는 Pickard

10) Vivian R. Pollak는 이 부분에 대해 절망에 빠져 굳어진 심장(stiff Heart)은 자신이 더 큰 유기체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을 능력을 상실하여 생명의 중심부로 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I”라 부를 수 없어 “was it He”라고 반문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Vivian R. Pollak, *Dickinson: The Anxiety of Gend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 207 참조.

11) John B. Pickard, *Emily Dickins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7), p. 101.

의 관찰은 흥미롭다. 특히 「구체적인 어휘와 추상적인 어휘가 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the concrete and abstract vocabularies are dramatically joined”)¹²⁾ “Quartz contentment”의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수정은 물론 일차적으로 다비된 육체의 박박함과 차가움을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수정은 영혼의 난련에 의하여 얻어질 수 있는 그러한 초월적인 견고함과 확고함을 암시함으로써 만족감을 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수정은 결정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Cleanth Brooks와 Robert Penn Warren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¹³⁾ 「수정의 만족감」은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結晶된 만족, 즉 키다란 고통의 충격 이후에 그 충격으로부터 結晶된 만족감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제 3련은 이 결정의 과정을 완결짓고 있는데 여기서의 주도적인 이미지는 「얼어감」(freezing)의 이미지이다. 고통의 경험은 납처럼 무겁고 둔감하고 음울한 시간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의 그것에 비유된다. 마지막 行은 처음의 갑작스런 「寒氣」, 그것이 이윽고 가져오는 얼어붙는 「마비감」, 그리고 죽음의 최후의 「해방감」에 이르는 고통의 과정을 요약해 보이고 있다. 「이 시인은 고통의 진정한 효과란 무고통의, 오직 극심한 상처만이 육체적으로 기저울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무감각의, 효과라고 결론짓고 있다」(“the poet concludes that the real effect of pain is its absence, the utter numbness that only a severe wound could physically produce”)¹⁴⁾는 Pickard의 해석은 아주 성당해 보인다. 이러한 고통의 역설적인 이중성에 덧붙여 이 시에는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암시가 담겨 있다. 그것은 고통이란 인간 경험의 피할 수 없는 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As old as Woe” (J. 1168) 같은 시에서 Dickinson은 “Woe”(고뇌)가 “bliss”(천상의 기쁨)와 마찬가지로 불가피한 인간 조건임(“From neither of them tho’ he try/Can Human nature hide”)을 강조하고 있다.

“I dreaded that first Robin, so,” (J. 348)는 인간 경험의 이 근본적인 원리를 보다 구체적인 문맥에서 예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는 자신의 고통이나 좌절감을 달래주기보다는 그것들을 오히려 더 예리하게 의식케 하는 생명과 활력과 쾌활함의 여러 징후들에 끊임 없이 직면해야 하는 한 시인의 정신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첫 울새, 숲 속에 담긴 모든 자연의 소리들, 수선화, 풀, 벌, 꽃들—이 모든 봄의 질령들은 그 순박하고 무관심한 쾌활함으로 시인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러나 시인은 「하지만,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들은 모두 여기에 와 있다」라고 명상에 잠긴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하나 하나 자기에게 인사를 보낼때 「여윈 차의 가슴으로 그들의 사려 없는 뽕뽕 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천진스럽게 그의 것털 모자를 들어 올려야 하

12) Suzanne Juhasz, *The Undiscovered Continent: Emily Dickinson and the Space of the Min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p. 80.

13)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50), p. 326.

14) John B. Pickard, *Emily Dickinson*, p. 101.

겠다고 생각한다. 「여윈 자의 가슴으로 받아들인다」(“in bereaved acknowledgment”)는 귀결은 특히 중요하다. 그것은 시인이 자신의 고통과 상실감을 피함이 없이 맞대면하려는, 그리고 삶의 조건이 아무리 사라 없고(“careless”) 非情的이고 잔혹한(“mangle me,” “pierce me”)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려는 시인의 노력을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에는 자연의 비정적인 무관심, 그 무관심한 우주 속에서의 소외감이 가져 오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Dickinson은 때로 “The Heart asks Pleasure—” (J. 536) 같은 시에서처럼 「즐거움」(“pleasure”), 「고통으로부터의 면제」(“excuse from pain”), 「고통을 죽이는 조그만 진통제들」(“those little anodynes that deaden Suffering”), 그리고 「죽음의 특혜」(“privilege to die”)를 갈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통은 우리가 결코 거기서 회복될 수 없는 인간 생존의 하나의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Dickinson은 잘 안다. “Pain has an Element of Blank” (J. 650)는 이러한 인간 생존의 숙명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으로서의 고통의 신비를 다루고 있는 시이다.

Pain has an Element of Blank—

It cannot recollect

When it begun—or if there were

A time when it was not—

It has no Future—but itself—

Its Infinite contain

Its Past—enlightened to perceive

New Periods—of Pain.

(고통은 공백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언제 그것이 시작되었는지—혹은

도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그것은 기억하지 못한다—

고통은 오직 그 자체일 뿐—미래가 없다—

고통의 무한함은 그것의 과거를—

고통의—새로운 시간을 지각하기 위하여 일깨워진

그것의 과거를 지닌다.)

이 시에서 Dickinson은 고통의 본질을 파고들며 고통의 경험을 시간과의 상관 관계에서 파악해 보려고 노력한다. 고통은 시작이 없고 또 끝이 없다. 하나의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으로서 고통은 항상 현존해 왔고 또 시간의 한계를 넘어 계속 현존해 갈 것이다.¹⁵⁾ 고통은

15) 시간의 장벽을 초월하는 고통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대표적 시는 “Pain—expands the Time—” (J. 967)이다. 이 시를 해석하면서 Charles R. Anderson은 “[Pain] makes clock and calendar meaningless and annihilates the very idea of eternity; the true center of pain exists in a temporal vacuum, containing its own past and future.”라고 말한다. 그의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p. 203 참조.

인간 경험에 있어서 오직 무한한 「지금」(“now”)으로 존재한다. “began” 대신에 사용된 “begun”이라는 모호한 구문 형태는 고통이 그것의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has begun) 것임을 암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직설법 동사인 “contains” 대신에 사용된 가정법 동사 형태인 “contain”¹⁶⁾ 역시 의미의 확대(‘contain’의 상태가 어느 한 기간에 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라는)를 위한 유사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고통을 다루는 시에서 뿐만 아니라 Dickinson의 거의 모든 시에서 어떤 행위나 작용(action)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끝이 나는 그런 역동적이고 극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되고 있는 현존일 따름이다. Sharon Cameron이 시사한 바와 같이¹⁷⁾ Dickinson의 시들은 어떤 상태에서부터 다른 상태로의 변화보다는 영속적인 현존 상태에 대한 의식의 해명 혹은 인식을 보여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Dickinson의 시는 어떤 새로운 변화보다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한 해명과 인식을 드러내는 데 이러한 해명과 인식은 대체로 이미 있는 것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깨달음에 기초를 두며 그 이중적 의미는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성격을 띠움으로써 그 인식의 강도를 높여 준다. “I like a Look of Agony” (J. 241)는 삶의 한 진실한 양상으로서의 고통에 대한 Dickinson의 이러한 인식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I like a look of Agony,
Because I know it's true—
Men do not sham Convulsion,
Nor simulate, a Throe—

The Eyes glaze once—and that is death—
Impossible to feign
The Beads upon the Forehead
By homely Anguish strung.

(나는 고통의 표정을 좋아한다,
그것이 진실임을 아는 까닭에—
경련은 흉내낼 수 없으며,
진통은 가장할 수 없다—

눈빛이 한번 흐려지고—그리고 그것은 죽음—
소박한 고통이 엮는
이마 위의 구슬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

16) 단수 동사인 “contains” 대신에 복수 동사인 “contain”을 쓴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7) Sharon Came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p. 167. 참조.

이 시에서 Dickinson은 고통과 고뇌의 역설적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다. 그는 「고통의 표정」이 가식을 허용하지 않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한다. 고통의 발작적 경련이나 분만의 고통같은 아픔의 극한 상태는 가장할 수가 없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이마에 맺히는 구슬같은 땀방울은 그것이 진짜의 고통으로부터 우러난 것이기 때문에 값진 「구슬」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시의 의미는 것처럼 단순하지만은 않을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의 한계 밖에 서서 일종의 아이러니한 무관심에 의하여 고통에 대한 그의 연민의 공감을 더욱 심화하고 싶은 Dickinson의 욕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욕구는 아마도 경험의 이중성에 대한 그의 깊은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일 것이다. 이러한 고통의 이중적 의미에 대한 그의 통찰을 담고 있는 많은 시들은 괴로움과 즐거움, 그리고 고통과 은총(grace) 사이를 오가는 의식의 상태를 즐겨 다룬다. “The hallowing of Pain” (J. 772) 은 그 좋은 한 예이다.

The hallowing of Pain
Like hallowing of Heaven,
Obtains at a corporeal cost—
The Summit is not given

To Him who strives severe
At middle of the Hill—
But He who has achieved the Top—
All—is the price of All—

(고통의 성스러움은
천국의 성스러움처럼,
육체의 댓가로 얻어지는 것—
극치의 상태는

언덕 중턱에서
안까뉘는 자에게가 아니라—
정상에 이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
모든 것은—모든 것의 보상일지니—)

이 시의 주제는 고통의 신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철저히 겪어야 한다는, 즉 고통의 극치에 도달한 사람만이 고통의 성스러움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고, 정상은 오직 철저한 고통의 지고한 댓가를 치르고서만이 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정상은 아마도 천국을 뜻할 것이며 그 정상에 이르기 위하여 바쳐야 하는 육체의 댓가는 아마도 죽음의 고통일 것이다. 이 철저함의 상태에서는 고통의 지옥은 천국과 하나가 되며 철저한 고통은 종교처럼 우리에게 값진 보상을 남기게 된다. 오직 그러한 상태에서 괴로움이나 고통으로부터 은총의 정수가 증류될 수 있는 것이라고 Dickinson은 믿고 있는 듯하다. “Essential

Oils—*are wrung*” (J. 675) 역시 같은 문맥에서 검토해 볼만한 시이다.

Essential Oils—*are wrung*—
The Attar from the Rose
Be not expressed by Suns—*alone*—
It is the gift of Screws—

The General Rose—*decay*—
But this—in Lady’s Drawer
Make Summer—When the Lady lie
In Ceaseless Rosemary—

(기름의 정수는—비틀러 짜지는 것—
장미의 精은
햇빛만으로—짜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 조임의 선물인 것—

장미는—시들지만—
장미의 精은—여인의 서랍 속에서—
여름을 만든다—그침 없는 로즈마리 꽃에 묻혀
여인이 누워 있는 그런 여름을—)

많은 Dickinson의 시에서처럼 이 시의 첫행 역시 매우 간결하고 압축된 형태로 전체 시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향기로운 정향(“essential oils”)은 강한 압착에 의하여(“are wrung”) 증류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장미의 精은 밝은 태양만의 산물이 아니라 압축기의 나사 조임의 선물(“gift of screw”)이다. 장미는 곧 시들어 사라져 버리고 말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장미의 精은 그것을 사용하는 귀부인의 서랍장 속에 남아 그 정향을 계속 보존하며 싱싱한 여름을, 그 귀부인이 그침 없이 피는 로즈마리 꽃향 속에 묻혀 누워 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여름을, 줄곧 만들어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의 주제를 「삶에 있어서 모든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⁸⁾ 그러나 이 시는 것처럼 단순하고 명료한 이야기만을 전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한 느낌은 우선 이 시의 구문상의 모호함에서 온다. Cristanne Miller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모호함은 어미 변화를 무시한 동사의 원형의 과도한 사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Miller는 불과 8행의 짧은 시에서 무려 4개의 동사(“be,” “decay,” “make,” “lie”)가 예상되는 단수형의 어미 변화를 따르지 않고 원형을 그대로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러한 破格은 「자신의 생각을 보편화」(“universalize her thought”)하려는, 그리고 항상 의미의 본질에 도달하려는 Dickinson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¹⁹⁾

18) Robert L. Lair, *Emily Dickinson*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71), p.120.

19) Cristanne Miller, “How ‘Low Feet’ Stagger” in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ed. Suzanne Juhasz. pp.138-39.

Miller는 또한 Dickinson의 이러한 언어의 跛行的 사용은 어떤 말에 대하여 단일한 의미나 연상을 부여하려는 우리의 일반적 의식을 뒤집어 엎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시가 의미의 본질에 관한, 나아가 詩作의 본질에 관한 시일 것임을 흥미있게 시사하고 있다²⁰⁾ 이처럼 짧은 시 안에 고통의 본질과 의미의 본질에 대한 것처럼 풍부한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시인으로서의 Dickinson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 아닐까 한다. “A Wounded Deer—leaps highest—” (J. 165)에서도 우리는 고통의 본질에 대한 유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 Wounded Deer—leaps highest—
I've heard the Hunter tell—
'Tis but the Extasy of death—
And then the Brake is still!

The Smitten Rock that gushes!
The trampled Steel that springs!
A Cheek is always redder
Just where the Hectic stings!

Mirth is the Mail of Anguish—
In which it Cautious Arm,
Lest anybody spy the blood
And “you're hurt” exclaim!

(상처 입은 사슴이—가장 높이 뿔다고—
사냥꾼은 말한다—
그것은 죽음의 황혼경—
그리고 숲은 침묵에 잠긴다!

장타당한 돌이 튀고!
젓빔한 강철이 튀어 오른다!
신열로 쏘시는 뺨이
늘 더 홍조를 띤다!

웃음은 고통 위에 찍어지는 갑옷—
그 속에서 웃음은 조심스레 무장을 한다,
누군가 피를 훔쳐 보고
「저런, 다쳤군!」 하고 소리칠까봐—)

이 시의 첫행 역시 이 시의 중심 주제,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외경

20) *Ibid.* p. 139. Miller는 이 시가 단순한 詩作의 본질만이 아니라 「장미의 精」같은 훌륭한 시는 남자에 의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expressed by Sons(?) alone”) 여자에 의해서도 쓰여진다는 (“But this—in Lady's Drawer”) 이권옹호론적 주장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삼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이 바로 고통이나 재앙으로부터 나온다」²¹⁾는 것을 매우 압축적인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다. 첫행에서 이미 “wound”와 “leap”라는 두 개의 액션²²⁾을 통하여 암시된 대로 이 시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역설적 대조에 의해서 성취된다. Dickinson의 주장은 치명적 상처를 입어 가장 높이 뛰는 사슴 등 예리한 대조를 이루는 일련의 例示들 속에 이미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죽음의 황홀경」의 역설, 「웃음」과 「고통」의 병치는 인간의 경험에 대한 Dickinson의 이중적 비전을 잘 드러내 보인다. 이러한 이중적 비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생각을 보통 그것에 의례 붙어 다니는 어떤 의미나 감정으로부터 마음대로 떼어내어 그것을 예술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Dickinson의 독특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George Whicher의 진술²³⁾은 정청할 만하다. Dickinson이 즐겨 사용하는 이런 종류의 수수께끼같은 역설은 단순히 말의 유희나 재치의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보는 그의 이중적 비전의 근본적인 표현 양식이다. James Reeves의 지적처럼 Dickinson은 「수수께끼와 역설로 사물의 이치를 말하고 또 주장하며... 진리를 찾기 위하여 수수께끼 놀음을 하는」(“[Dickinson] reasoned, or argued, in riddles and paradoxes... and riddled for truth.”)²⁴⁾ 것이다. “success is counted sweetest” (J. 67)는 이러한 표현 양식을 포함한 Dickinson의 시의 특성을 가장 성공적으로 보여 주는 예술적 성취의 하나이다.

Success is counted sweetest
By those who ne'er succeed.
To comprehend a nectar
Requires sorest need.

Not one of all the purple Host
Who took the Flag today
Can tell the definition
So clear of Victory

As he defeated—dying—
On whose forbidden ear

21) Robert L. Lair, *Emily Dickinson*, p. 33.

22) Clark Griffith는 그의 저서 *The Long Shadow: Emily Dickinson's Tragic Poet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 30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Brought together in this group of superb paradoxes are two actions: the *wound* and the *leap*. ... But we are also made to see that the leap has its special grace and beauty, its aesthetic refinement, its own distinctive purity of movement—and that these qualities represent a transcendence of the hurt, and even perhaps a kind of triumph over it.”

23) George Whicher, “American Humor” in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ichard B. Sewall, p. 41. Whicher는 Dickinson의 이 배어냄의 능력과 이중의식이 청교도적 내적 성찰에서 길러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24) James Reeves, “Introduction to *Selected Poems of Emily Dickinson*” in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Richard B. Sewall, p. 120-21.

The distant strains of triumph
Burst agonized and clear!

(성공은 성공해 보지 못한 자에게
가장 달콤하고 값진 것.
神酒의 참맛을 알기 위하여는
고통스런 목마름을 겪어야 하는 것.

오늘 勝戰의 깃발을 날리는
저 화려한 무리들 그 누구도
승리의 의미를 그처럼
신명히 정의할 수 없으리라

敗戰하여—죽어가며—
고통스럽게 그리고 선명하게
멀리서 들려 오는 승리의 노래를
금지된 귀로 듣는 그 병사처럼!

이 시의 주제는 아마도 Dickinson이 가장 즐겨 다루는 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것은 패배의 쓰라림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승리의 달콤함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에서 Dickinson은 즐거움과 괴로움, 희열과 절망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A Wounded Deer—leaps highest”에서와 같은 그런 역설을 통하여 명쾌하게 드러내 보인다. Dickinson이 희열과 절망을 결코 단순한 등식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Charles Ander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를 들어, 地上의 고통은 천국의 기쁨의 보상에 이르는 예정된 길이라는 청교도적 관점 대신에 Dickinson은 희열의 순간적인 별견을 인간 조건의 정수인 절망을 측정하는 척도로 삼고 동시에 그것을 절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For example, in place of the Puritan view that earthly suffering is the ordained path to a heavenly reward of bliss, [Dickinson] makes the momentary glimpse of ecstasy both measure and cause of the despair that is the essence of the human condition.”)²⁵⁾ Richard Wilbur는 절망과 희열 사이의 이러한 상호 보완적인 긴장 관계를 보상(compens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 시가 보상의 원리를 밝히고 있는 시라고 말한다.²⁶⁾ Albert J. Gelpi가 「Dickinson은 삶이란 ‘반은 황홀경이요 반은 곤경’이라는, 어떻게든 화해되고 조정되어야 할 상반된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Dickinson was aware that life was ‘Half a transport—half a trouble’—contrary states which had somehow to be reconciled or accommodated.”)²⁷⁾고 주장할 때도 그것은 바로 이 보상의 개념에 대한 Dickinson의 인식을

25) Charles R. Anderson, *Emily Dickinson's Poetry*, p. 220.

26) Richard Wilbur, “Sumptuous Destitution” in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ewall, p. 131.

27) Albert J. Gelpi,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71), p. 104.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Dickinson이 이 시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반되고 대극적인 상태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보상의 원리이며 이 원리에 대한 Dickinson의 강조를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경험의 복합적인 이중성에 대한 그의 긍정적 깨달음이다. 인간의 경험의 신비로운 이중적 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하여 Dickinson은 “agonizing”이 정확한 문법적 표현일텐데도 “agonized”라는 모호한 구문 형태를 고의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한다. “agonized”와 “agonizing”에 담긴 이 이중의 의미는 고뇌(“agony”)가 승리한 자들이나 패배한 자들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임을 암시하는 데 매우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Dickinson의 몇 편의 시의 분석을 통하여 살펴 보았듯이 Dickinson에게는 고통이란 때로 무자비하고 잔혹한 것이긴 하지만 매우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은 그에게 인간 영혼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해 주며 무엇보다도 그로 하여금 경험의 신비로운 이중성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의 詩作이 절정기에 이른 1862년 Higginson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Dickinson은, 마치 모지를 지나는 두려움에 찬 아이처럼 자신은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고 적고 있다. Dickinson의 시는 이처럼 삶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다. 그러나 Dickinson은 그 두려움과 좌절의 개인적 차원을 극복하고 초월하여 결국 고통을 인간 조건의 精髓라는 보편적 차원의 주제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Pickard의 다음의 진술은 이 글의 맺음을 대신해 주기에 매우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Dickinson은 경험의 양면을 보았다. 그리고 어떤 교리나 전통적 관념들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고 삶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는 움츠리지 않고 삶의 불행과 고통을 정면으로 맞아들이며 삶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하였다. 삶의 고통 역시 삶의 한 양상인 까닭이다. 때로 그는 기대가 성취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행복이 거부되는 동안 오직 고통만이 지속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투쟁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고통도 그의 예민한 관찰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Dickinson] viewed both sides of an experience and, unhindered by dogma or traditional concepts, accepted life as it occurred. Unflinchingly she faced its misery and loneliness, even relishing its bitterness, since this too was an aspect of life. Sometimes she claimed that anticipation surpassed attainment and that pain alone endured while happiness was denied. Yet she never ceased her struggle, nor allowed any facet of pain to escape her acute observation.”)²⁸⁾

28) John B. Pickard, *Emily Dickinson*, p. 95.

Bibliography

- Anderson, Charles R. *Emily Dickinson's Poetry: Stairway of Surpris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 Brooks, Cleanth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Henry Holt and Co., 1950.
- Cameron, Sharon. *Lyric Time: Dickinson and the Limits of Genre*.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 Cody, John. *After Great Pain: The Inner Life of Emily Dickins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Diehl, Joanne Feit. *Dickinson and the Romantic Imagin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Frye, Northrop. *Fables of Identity: Studies in Poetic Myth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3.
- Gelpi, Albert J. *Emily Dickinson: The Mind of the Poet*. New York: The Norton Library, 1971.
- Griffith, Clark. *The Long Shadow: Emily Dickinson's Tragic Poet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 Johnson, Thomas H. *Emily Dickinson: An Interpretive Biogra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5.
- Juhasz, Suzanne. *The Undiscovered Continent: Emily Dickinson and the Space of the Mind*.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 Juhasz, Suzanne. ed. *Feminist Critics Read Emily Dickins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3.
- Lair, Robert L. *Emily Dickinson*. New York: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71.
- MacLeish, Archibald. *Poetry and Experience*. Baltimore: Penguin Books, 1960.
- Pickard, John B. *Emily Dickinson*. New York: Rinehart and Winston, Inc., 1967.
- Pollak, Vivian R. *Dickinson: The Anxiety of Gender*.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Sewall, Richard B. ed. *Emily Dickinson: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3.
- Whicher, George. *This Was a Poet: A Critical Biography of Emily Dickins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38.
- Wolosky, Shira. *Emily Dickinson: A Voice of War*.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4.

《Abstract》

The Poetry of Emily Dickinson and Dual Vision of Life**Seung-Gul Czon**

One distinctive feature of Emily Dickinson's poetry is the ambiguity both of meaning and syntax, and this ambiguity seems to be closely related to her concern with the duality of human experience and her ambivalent feeling toward the mystery of life. She is constantly obsessed with the problems of good and evil, of pleasure and pain, of belief and doubt, and of life and death.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how Dickinson's dual visions are worked out in her poems about pain or suffering, which is one of her major themes. She is singularly sensitive to pain and has an extraordinary ability to probe into the nature of grief. She tries to analyze and even intellectualize the nature of suffering with her perfect description of the supreme moment of anguish. Sometimes she wishes to stand outside the anguish and by a kind of ironic indifference to deepen the inherent compassion. It is quite natural that such wish come from her deep concern with the duality of human experience. Many of her poems about pain reveal her insight into the dual meaning of suffering. They deal with the consciousness moving between pain and pleasure, between torment and grace, suggesting that one must go through pain thoroughly before he can experience the "hallowing" of pain; that only those who reach the "summit" of suffering are able to comprehend the sacred wisdom of pain; that in such state grace can be distilled from torment.

Dickinson was aware that "Life was 'Half a transport—half a trouble'—contrary states which had somehow to be reconciled or accommodated." What she emphasizes in many of her poems is the law of compensation working between these contrary states, and it is her awareness of the duality of experience which underlies her emphasis on this law. To Dickinson pain has a great value, although it is sometimes merciless and unrelenting. For it provides her with a touchstone for estimating the depth of the human soul and enables her to gain an insight into the mystic duality of human experience.